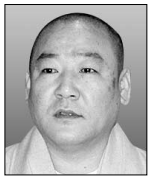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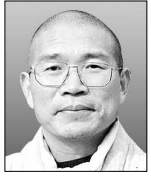
일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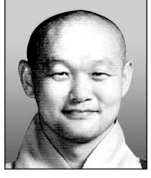
서울경찰청 경승실장에 서울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은 3월 4일 서울지방경찰청 경승실장에 위촉돼, 위촉패를 받고 경찰교화 활동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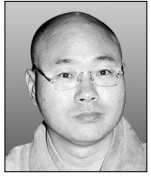
동국대 개강법회 동행 동국대 정각원장 진월 스님은 3월 17일 오후 7시 동국대 중강당에서 대학 이사장 현해 스님을 법사로 개강법회를 병행한다.



장국영 2주기 추모법회 서울 봉은사 주지 원해 스님은 3월 27일 오후 1시 법당에서 홍공 영화배우 장국영(장국영) 씨의 2주기 추모법회를 병행한다.



동계올림픽 개최 기원법회 원주 구룡사 주지 원행 스님은 4월 7일 오전 9시 경내에서 2014년 동계올림픽 평창 개최를 기원하는 대법회를 거행한다.(033)731-4800



자비수관 주재 법문 대구 동화사 강주 지운 스님은 5월 3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동구 고속버스터미널 5층에서 '자비수관'을 주제로 법문한다.



박완일씨 초청 강연회 개최 대구 원효불교대학장 원각 스님은 3월 22일 오전 11시 불교대 법당에서 박완일 법사 초청 특별불교강연회를 개최한다.(053)563-5154



박석연 박사 초청 건강강좌 성인병예방국민운동 이호석 회장은 3월부터 1·3주 토요일 오후 4시 서울 선릉 성원빌딩에서 박석연 박사초청 건강강좌를 연다.(02)512-6282

이응산 수지, UN여성불자상 수상

미얀마 정치 지도자 이응산 수지(사진)가 UN이 수여하는 '여성불자상(The Buddhism prize for woman)' 수상자로 3월 7일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오랫동안 정치적 탄압을 받으면서도 조국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가 인정 받은 것이다. 한스 피터 에릭스만 주 대국 스위스 대사가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 이응산 수지에게 상장을 전달했다. 그녀는 지금도 랑군 현지 자택에서 3차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



강유신 기자

“문화포교 핵심은 ‘사람’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취임 현진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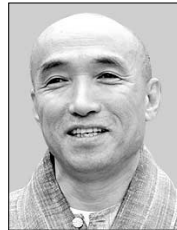
“한국불교 전통문화를 내·외국인들에게 체험시키고 널리 알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3월 7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에 취임한 현진 스님(사진)은 총무원 포교부장과 교육부장 소임을 맡았던 경험을 살려 불교문화와 포교를 연결시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화와 포교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일선에서 포교를 하다 보면 서로 원만하게 맞물려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물적 문화유산도 중요하지만



현대는 사람의 문화입니다.” 스님은 “21세기는 문화포교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사람의 문화를 활성화할 때 포교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자들을 응시시켜 효율적인 포교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어느 날 중고생들이 손목에 단주를 차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도 기록해서 불자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프로골퍼인 박지은 박세리 선수가 손목에 단주를 차서 우리들도 차는데요’라고 답하더군요. 이것이 바로 문화포교의 한

화합 통한 포교 저변 확대

제천불교총연합회장 황도 스님



“제천불교의 명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지역 스님들과 불자들의 뜻을 받아들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최근 제천불교총연합회장에 추대된 황도 스님(무암사 주지·사진)은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자신감을 내비쳤다. “우리 지역의 사람들은 저마다 특색이 있고 활동도 활발한 편입니다. 수행단체들도 꾸준히 움직이고 있고요. 이런 힘을 하나로 아우르는 것이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찰과 신도단체의 화합이 제천불교 발전의 관건이라는 황도 스님은 아울러 개별 사찰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포교와 복지활동을 연합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도 스님은 또 유물적 등 지역 문화행사도 큰 스님 초청 법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명우 기자

회원·활동 배가에 노력

대전 ‘청림회’ 회장 영진 스님



대전의 조계종 비구니 스님들 모임인 ‘청림회’는 1985년 창립돼 지역불교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 왔다. 그런 청림회가 한발 더 도약하겠다고 나섰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청림회 새 회장 영진 스님. 3월 3일 청림회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에 추대된 영진 스님(용화사 주지·사진)은 “청림회와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진 스님이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청림회의 ‘품질 관리’다. “회원 수를 배가하면 그만큼 역량도 커질 것으로 봅니다. 많은 스님들을 영입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싶습니다.” 이밖에 그동안 청림회가 해 온 장학사업이나 군법당 지원을 계속하면서 지역 복지 기여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청림회 회원 마련에 대해서는 “3년 임기 동안 회원마련이 더욱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ihan@buddhapia.com

“한국의 불교문화 세계에 자랑”

‘삼국유사’ 독일어로 번역 김영자 교수



“삼국유사”가 독일어로 번역된 것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 불교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년간의 작업 끝에 최근 <삼국유사>의 독일어 번역을 마친 독일 바이에른 주 레겐스부르크 대 한국어학과 김영자독일명 베이커 김·65·사진)교수는 “어휘 하나 선택하는 데도 공동 번역자인 독일인 라이너 짐머만(뮌헨 파호흐데 철학박사)교수와 수많은 토의 및 검토, 확인 절차를 거쳤다”며 “삼국유사가 복합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상업성이 떨어진다든 지적도 받았지만 양질의 도서를 출판하는 독일의 출판사를 선정해, 빠른 시일 내에 독일어판 <삼국유사>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jisun@buddhapia.com

탄허불교재단 이사장 혜거 스님 취임식



탄허불교문화재단 제7대 이사장 혜거 스님 취임법회가 3월 6일 대전 자광사에서 열렸다. 동국대 이사장 현해 스님, 김광삼 현대불교 사장, 명호근 쌍용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혜거 스님은 “탄허 스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대원불교대 부산캠퍼스 첫 입학식



대원불교대학·대학원 부산캠퍼스 2005학년도 제1회 입학식이 3월 5일 법당에서 대원정사 김범준 상임법사를 비롯한 신입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원불교대학 허경구 학장은 “역사 깊은 대원불교대학에서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해 원력을 성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교봉사회 창립 2돌 기념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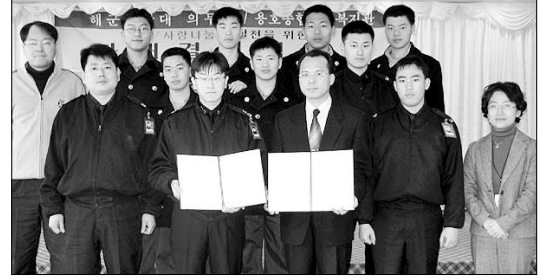
대한적십자사 불교봉사회(회장 박추자)는 3월 11일 부산 대한적십자사 강당에서 창립 2주년 기념법회를 갖고, 부산적십자사 지구협의회 승격을 축하했다. 영주암 조실 정관 스님 등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 박추자 회장은 “불교봉사회가 불자들의 봉사 참여 통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불자마라톤동호회 5일 창립



달리는 포교사 ‘한국불자마라톤 동호회’가 3월 5일 서울 만해교육관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고분분 낭독으로 시작된 창립법회는 연례 보고회와 회칙 승인, 임원 선출의 건 등으로 진행됐다. 회장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운권 사무국장이 선출됐다.

용호복지관, 해군 3함대와 무료검진 협약



부산 용호복지관(관장 해충)은 3월 7일 복지관 강당에서 해군 3함대 의무대와 무료건강검진 협약을 체결, 협약을 교환했다. 이에 따라 의무대는 지역 내 노인, 장애인들에게 월 2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이날 행사에는 해충 스님과 3함대 의무대장 정원택 대위 등이 참석했다.

이것이 사경책이다!! (사경하신 후 부처님 복상용으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Hanbunbanyasimgye, Hanbunbanyasimgye, Hanbunbanyasimgye, Hanbunbanyasimgye. Since 1975, Dongjin Publishing, Dongjin Gihyeok.

간(肝)의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덩이와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에 살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미술)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평생을 만들어 주면 영이 바뀝니다 명단옥혈방. 영이 바뀐다면, 몸이 바뀝니다. 영이 바뀐다면, 영이 바뀝니다. 명단옥혈방 051)865-9933. 차방전용 명단옥혈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